

buddhanews.com

아는 거를 다 놓고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

25면에서 계속

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어려움이 크게 나한테 별 어졌다, 병고야 생겼다, 뭐 어두움이 다가왔다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오던 관습과 집착과 욕심에 의해서 착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묻지 마라. 미래도 생각지 마라. 오늘도 공했다. 공했으니가 잘나잘나 가버리는 것에 착을 두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를 착을 가지고선 온통 작년에는 어땠는지 올해는 어땠는지, 물론 얘기가 하시겠지만은 함이 없이 얘기하고 속애다가 착을 두고 욕심 두고 그러하고 하지 말고, 그대로 평범하게 '아, 작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어?' 하고 말을 여여하게 그대로 해라 이겁니다. 꼭 하나 문제가 되는 게 그 생각입니다. 업도 불을 자리가 없고 고도 불을 자리가 없고, 병도 불을 자리가 없고 아무것도 불을 자리가 없는데, 그냥 이 심봉을 붙들고 의지하려고 그랬더니 그 생각으로 붙잡고선, 심봉은 주인공이라는 이름만 부르고 정작 붙드는 거는 그 고를 붙드는 거예요. "심봉을 의지하고선 바뀌는 돌아가라. 여여하게 돌아가라." 그랬더니 심봉은 이름만 부르고 고를 붙들고 그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놓고 불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부르는 그것도 말일 뿐이죠. 생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일거수일투족 거기다 의지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감사함도 거기 있고 즐거움도 거기 있고, 같이 붙들고 올 수도 있고 뭐 깨서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보배입니다. 보배!

그런데 거기에다가만 그렇게 심중을 굳히고 의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하고 의지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의지하는 마음보다도 욕심 찬 마음, 그 탐심, 치심이 더 성하니 될 법이나 합니까. 또 바깥으로 하여튼 간섭하는 거는 뭐 이 루 말할 수도 없죠. 저기 뭐 똥 굴러가는 거를 봐도 저 똥이 어디로 굴러가느냐고 또 야단이에요. 허허 참 내! 아이, 어디로 굴러가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아, 새들도, 저 3층에 새들이 와가지고 뭐 먹음 거를 뿌려주면요, 사람이 안 다니는 데부터 먹어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는 데는 좀 주춤하고 물러서 있다가 사람이 안으로 들어오면 와서 다 먹어요. 그렇게 영묘한데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의지하라는 데는 안 하고, 그냥 남의 일 참견다 하고 남의 탓은 다 하고, 탓할 사이가 어딴 겁니까? 지금 빌딩에 불이 나서 자기 살 구멍을 찾아 나가는데 그 순간에야, 남의 탓을 할 사이가 어딴 겁니까, 글썽! 남의 탓 하지 남 참견하지, 그러고는 그 심봉에 의지했으면 '거기다가 다 놓고, 아들과 부모 모든 게 다 가실지 패었으니 거기다 놓고 그저 의지해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

써 입으로 망해버려요! 입으로 다 깨뜨려!

여기다간 (가슴을 짚어 보이며) "주인공!" 하고 이름만 부르고 어떤 때는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요놈의 새끼야, 응? 배울 시기에 배워야지 이럴 수가 있느냐?" 하고 퍽 퍽 뛰고 온통 난리가 나니, 외려 그러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달아나가요. 자기가 하는 게 어깨에 무겁고 또 그게 뭐가 무거우냐고 야단을 치면 달아나가요, 그냥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마음 하나만 그렇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모든 것을 놓고 간다면 아니라 모든 것을 놓고 가니깐, 그냥 거기에 착을 두지 마라 이겁니다. 한생각이 뛰어나야 내 가정도 뛰어난 살림살이가 되죠. 어떻게들 생

겨야 하고, 지분을 올려놔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붙여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옛날에는 '내 가족을 얻었느냐? 또는 살을 얻었느냐? 뼈를 얻었느냐? 정수를 얻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옛날의 선지식들이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런 거를 따질 게 아니라, 우리부터 실천을 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뛰어넘는다면 이거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보면 다 알고 들으면 알고, 그냥 다 알게 되어요.

여러분 가정에 복잡한 것을 때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해서 그 한 가지는 면했으니 또 앞

아가진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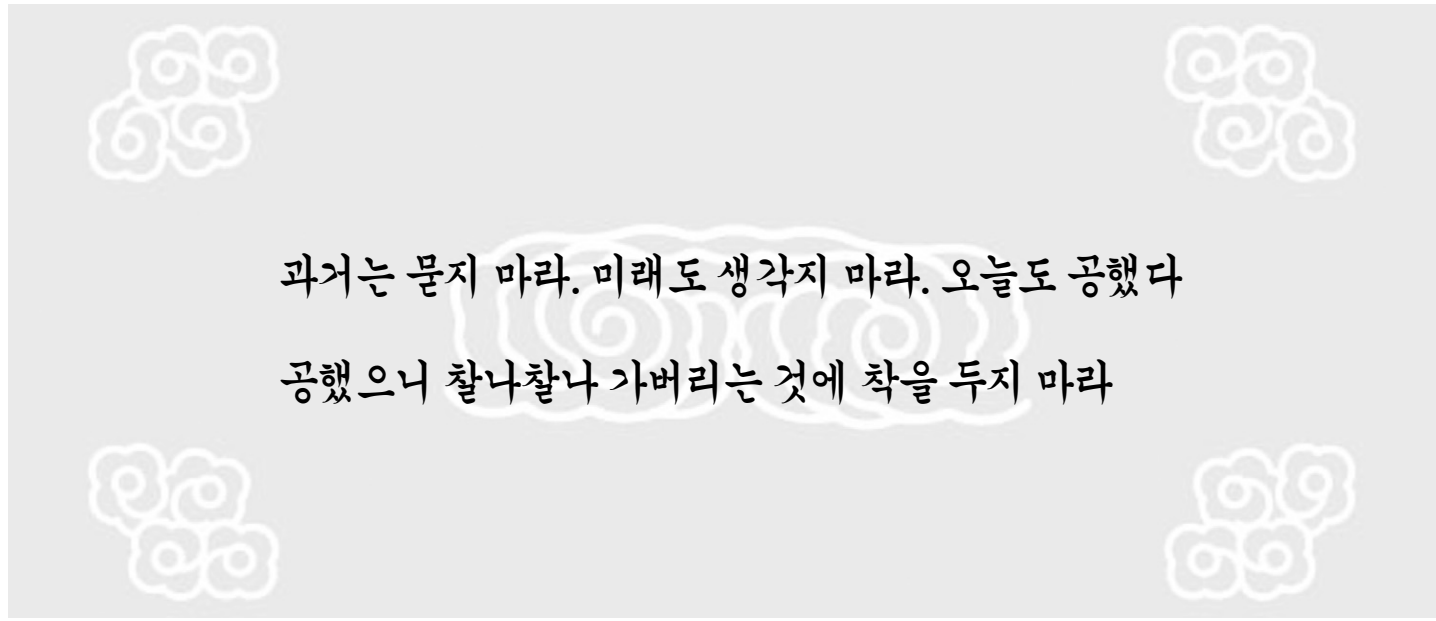
그와 같이 그냥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폐일언하고 모든 거를 다 집근시켜 놓으면 마음에서 고장난 거 마음으로 고쳐야 하고, 의식에서 고장난 건 마음을 통해서 고쳐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고 천차만별이 다 마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내가 형성된 것도, 이 차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사는 그것이 나의 소임입니다. 그건 누구한테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소임을 가지고 영화 텔레트처럼 내가 소임을 받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어서 가지고 나왔느냐?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것도 불을 게 얹고 저런 것도

습니까? 세상에! 그냥 같 일을 왜 이렇게 만들어서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또 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하면 기가 막혀서 말입니다. '허허, 참 기가 막혀서!' 이겁니다. 혼잣말이죠, '참, 기가 막혀서!' 이겁니다. 그거를 어디다가 말을 합니까? 그러면 "그저 열심히 관하세요. 그러면 내 관하는 대로, 진실하게 관하면 나도 거기 도와주게 돼 있어. 그러나 진정코 진실하게 관하라." 하고 이렇게 보내놓으면 얼마 안 있어서 "아이고, 스님! 해결했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글썽 이래요. 그 때로는 화가 나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당신의 전전질이 있으니까 내 전전질이 있고, 내 전전질이 있으니까 당신의 전전질이 있는 거지, 맞았었기 때문에 불이 들어왔을 뿐이지 뭐가 고마워?" 이러죠. "고맙게 생각하려면 당신 주인공한테 고맙게 생각해!" 이라고요. 아이, 이거 정말이지, 나는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미처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나는 예전에도 내 몸뚱이를, 몸뚱이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내 이 한 가지만은 그렸습니다. 결정적으로 끝난 데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겁니다. 이 세상을 다 주고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겁 안 난다 하는 거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그럽니다. "돈을 하늘 땅만큼 가져오는데도 당신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면 소용없어. 공덕이 안돼, 당신 네들이 돈 가져오는 거 벌어서 먹고 살 양으로 내가 중노릇 하는 줄 알아?" 이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죽어야죠. 아니, 죽기 이전에 벌써 저 땅속에 사는 하천세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하천세계로 떨어지든 하나도 겁나는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 있으니까요. 하하하. (대중 박수)

질문하실 분 있다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지금 내가 한 발짝 고정된 게 없이 화해서 돌아가니까 병 불을 것도 없고, 업 불을 것도 없고 고 불을 것도 없다 그랬으니깐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가정이 흥해질 수도 있고, 가정이 아주 한테 떨어져서 일으켜 세울 수도 없는 형태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아주 그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집도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 극치적으로 이겁니다. 나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편으로 말을 안 해주고는 안 되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깐요. "아주 진실하게 관하면 귀인이 생기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하고 그 귀인은 부처님께서 해주게끔 합니다. 하하하. (다음 호에 계속)



과거는 묻지 마라. 미래도 생각지 마라. 오늘도 공했다
공했으니 잘나잘나 가버리는 것에 착을 두지 마라

각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말한 것이 제일 귀중한 겁니다. 우리가 잘나잘나 프로펠러 돌아가듯이 인생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자리에 뭐가 불을 자리가 있느냐! 병도 불을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하나 챙겨서 진짜로 믿고 놓치지 못하니 아니, 내가 없는 말을 한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 그냥 진리를 상황대로 얘기했을 뿐이예요. 얘기했는데 그 진리대로 살지 않고 왜곡되게 사니까 진리대로 사시라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얼굴도 허얇게 피고 사는 날까지 틀림없이 살 겁니다. 아! 허허허.

그리고 영원할 것입니다. 왜냐?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어떠한 차원으로서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든 자기 자유니깐요. 이 지구 안에 태어나지 않고 상세계에 태어나는 별성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자기 자유니깐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알아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춧돌이 있고 또 기둥이 있고 또 그 뭐? 대들보! 대들보가 있어야 하고 서까래가

으로 딱쳐올 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아는 게 없는 아는 거를 다 놓고 내가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어야만이 어떠한 게 와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떠한 게 와도 돌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아마 귀신이 이 세상에서 다 물려온대도 "허허" 하고 웃을 겁니다. 왜냐? 돌이 아닌 까닭에 말입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가 자기 손가락 하나를 해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내 마음으로만 믿고,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된 사람은 정신들이는 거를 보기 이전에 무조건 그저 마음을 내가 그쪽으로 주든지, 그쪽의 마음을 내가 가져오든지 해서 고칩니다. 그것을 약을 먹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영계성. 업보성 · 유전성 · 세균성 · 인과성이 몸의 의식들 속에 다 끼여서 다 있습니다. 그러니 한생각을 그렇게, 공했다는 거를 알고 그냥 회복 마음을 편안하게 두고 그냥 넘어간다면, 그냥 거기에 기둥만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모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날

불을 게 얹고, 업도 불을 게 얹고 고도 불을 게 얹고, 병도 불을 게 얹고.' 하는 건전한 생각으로 주인공의 그 줄만 잡고서 모든 거를 거기다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바꾸어서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른다면 그것으로써 인생 살이는 족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은 다 모르십니까? 모른다고 해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로 믿고 실천을 하라." 하는 거는 내가 모르든 알든 상관없이 진짜로 믿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그대로 한 소식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배우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니 내가 어떻게 그분같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그 생각이 탈인 거예요. 그러니 스무드하게 넘어갈 일도, 집안에서 넘어갈 일도 생각으로 붙들어서 오하려 그것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레가지고 넘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벌어지면 이게 이렇게 벌어졌으니 어떡하느냐고 또 뛰어옵니다. 내가 볼 때에 어떻게

※위 법문은 1996년 6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법 연수생 모집

교육 내용

1. 대인불안공포증의 원인분석과 대안
2. 단전호흡 & 발성훈련의 실기훈련
3. 설법의 개념과 부처님의 5종 설법
4. 설법자료 및 훈련자료에 의한 연수
5. 음성언어와 몸짓언어의 실기훈련
6. 표현상의 수사 및 논리상의 수사
7. 경우에 따라서 '회면(催眠)'도 지도함

회원모집 & 특징

- ◆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할 수 있음
- ◆ 맞춤식 개인지도 (2시간 기준, 8과제)
- ◆ 동영상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지도 교수 又佛 김철희 박사 직접지도

- 한국설법연수원 원장
-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 한국산악기공술협회 법인 이사장
- 대한회면심리학회 부회장 / 대통령 표창(교육 부분)
- 美 로드리고 의과대학에서 최면전문가 자격증취득 / 최면지도사
- 대한응변 중앙회 회장 역임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E-mail : kch3296@hanmail.net

한국설법연수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빠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빠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영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중생구제와 자비실천을 함께하실 스님, 포교사, 법사님을 모집합니다

종정대행 총무원장 월산 혜봉

※ 준비서류 및 서류 발급

- ◆ 중단 입증신청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 ◆ 입증하시면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포교사증 발급
- ※ 각 지역별 간부직 소임자를 우선 모집합니다. 연락바랍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번지
전화 054)262-5060 / 팩스 054)262-0067
혜봉스님 직통 011-545-5060

42기 기치유 수련생 모집

"기치유" 선택 받은 분의 특권이 아닙니다. "기치유"는 수련을 통해 누구나 개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1주 수련 만으로 누구나 기치유를 할 수 있다.

- ▶ 본원의 기치유 수련은 몸에 손을 대지 않는 전통 기치유 방법만을 전수함.
- ▶ 누구나 배워서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의 질병도 치유해 줄 수 있다.
- ▶ 11주 교육 수료 후 한국 기치유 연구회 인증 수료증 수여
- 수련일자 : 6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4:20(11주과정)
- 수련장소 : 서초 단우빌딩3층/교대2호선 4번출구 1분거리
- 수련문의 : 02-3482-5032, 3482-5065
- 대 상 자 : 건강 및 대체의학에 관심있는 일반인등

개강(지방 수련원)

- 대구 수련원 : 6월 18일, 20일 / tel : 053-652-2202
- 부산 수련원 : 6월 13일, 오후 2시 / tel : 051-645-5068

연구회 본원 및 지부에서 기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치유 및 상담은 예약 필수 / Tel. 02-3482-5032

www.gihealing.com 한국기치유 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